

2026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 국어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찰대학

<http://www.police.ac.kr>

※ 총 13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 중위가 대번해서 업을 차례가 되었다.

그는 업기 전에 슬쩍 주 대위의 허리께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이며 철모며 총이며 윗저고리를 벗어 버린 지 오래였다. 남은 무기라곤 주 대위의 허리에 찬 권총뿐이었다.

⑦ 주 대위는 현 중위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잤다. 그리고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몸뚱어리는 두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짐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고 권총으로 자결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 대위는 현 중위의 시선을 모른 체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 버리고 그의 등에 업혔다.

⑧ 현 중위는 김 일등병만큼 못했으나, 그래도 같은 학도병 출신인 주 대위보다는 체구도 크고 힘도 세어 꽤 잘 업어 냈다.

이러한 그들이 이를 동안에 먹은 거라곤 더덕과 칡뿌리, 그리고 어쩌다 찾아낸 셈물로 겨우 갈증을 면한 것밖에 없었다. 게다가 첫여름 햇볕은 불길이었다.

업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찝찝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었다.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내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꾹꾹 감아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푸푸거리며 고개를 흔들어 떨구어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점차로 업은 사람의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교대가 잣아 갔다.

⑨ 주 대위는 자기의 가슴과 업은 사람의 등이 젖은 셔츠를 격해 서로 미끈거리는 상쾌하지 못한 촉감에서 그러나 자신이 살아 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중략)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⑩ 은은한 풋소리 사이로 ⑪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 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⑫ 개 짖는 소리 같아.”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을 쳤다.

⑬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폐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불어 있는 것도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끌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 업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 그러고는, / “앞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⑭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끌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뚝바로!”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한 거리에서 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템으로 무한정 빠져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⑮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끌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빼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뭉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끌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외양이나 행동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B]는 인물 내면의 묘사를 통해 행동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A]는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부각하고, [B]는 시간적 배경의 제시를 통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 ③ [A]는 인물의 회상을 제시하며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B]는 사건의 결말을 언급하며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객관적인 시선에서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⑤ [A]와 [B]는 각각 서로 다른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2. **권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 대위의 귀 뒤에 대고 그를 위협하는 도구이다.
- ② 김 일등병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걷게 하는 동력이다.
- ③ 김 일등병이 주 대위를 원망하며 그에게 겨누는 무기이다.
- ④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이 모두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다.
- ⑤ 현 중위가 자결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주 대위가 예상한 수단이다.

3. <보기>를 참조하여 ⑦~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으로 인물과 사건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할 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를 선택하는 기법을 초점화라고 한다. 초점화는 작품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독자는 서술자가 초점화한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며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너와 나만의 시간>은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시선을 초점화하며 사건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서술자는 인물들의 시선을 번갈아 초점화하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는 여러 인물의 시선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사건에 얹힌 경험을 다양하게 드러내면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 ① ⑦: 주 대위의 시선을 초점화하면서, 현 중위의 눈길에 담긴 심리를 추측하는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 ② ⑧: 현 중위의 시선을 초점화하면서, 주 대위보다 자신의 신체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믿는 그의 인식을 전하고 있다.
- ③ ⑨: 주 대위의 시선을 초점화하면서, 불쾌한 촉감에서 살아 있음을 체감하는 그의 느낌을 전하고 있다.
- ④ ⑩: 주 대위의 시선을 초점화하면서, 김 일등병과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는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 ⑤ ⑪: 김 일등병의 시선을 초점화하면서, 주 대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처지를 비판하는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4. ⑧~⑪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주 대위는 ⑥가 ⑩임을 인식하면서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주 대위는 ⑥를 ⑧와 함께 듣게 되면서 ⑩로 착각했다.
- ③ 김 일등병은 자신이 들은 ⑥가 ⑩였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 ④ 김 일등병은 ⑥보다는 ⑧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 대위에게 이동할 방향을 알렸다.
- ⑤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⑧의 은은함에서 희망을, ⑩의 희미함에서 절망을 느낀다.

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후소설은 6·25전쟁을 소재로 발표된 소설 중 한 유형으로, 전투 의욕을 고취하고 적에 대한 중오감을 부각하기 위해 창작된 전쟁소설과 구분된다. 전후소설의 기본적 관심은 전쟁의 상흔과 참상을 있다. 군인들은 생사의 경계로 몰리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생존의 의지나 욕구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군인이 낙오하거나 다치고 죽었는데, 이들의 희생은 승리를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전후소설은 이러한 상흔을 재현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다. 전후소설의 또 다른 관심은 전쟁의 폭력으로 훼손된 인간성의 회복을 전망하는 것이다. 전후소설에서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고민하다가도 결국 타인의 생존을 위해 인간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인물은 전후소설이 전망한 인간성 회복의 방향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① ‘현 중위의 시선’을 외면하며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는 주 대위의 모습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욕구가 느껴지는군.
- ② 인물들이 ‘이틀 동안에 먹은 거라곤 더덕과 짚뿌리, 그리고 어찌다 찾아낸 샘물로 겨우 갈증을 면한 것’이라는 서술에서 죽음의 위기로 몰리는 인물들의 극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눈알이 불어 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라는 김 일등병의 말에서 낙오한 군인이 느낀 죽음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군.
- ④ ‘날 업어!', '자, 걸어라!'라며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주 대위의 지시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타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군.
- ⑤ 주 대위는 의식을 잊지만 김 일등병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사람의 그림자’에 도달하는 장면에서 전쟁의 참상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군.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요런 년의 팔자 있나. 깜짝 사이에 영감 죽어
삼흔구백이 불꽃 되어 불티와 같이 동행하여
아주 펠펄 날아가고 귀한 아들도 불에 데어서
죽는다고 소리치네.
엉아엉아 우는 소리 이내 창자가 끊어진다.
세상사가 귀찮아서 이웃집에 가 누웠으니
덴동이를 안고 와서 가슴을 헤치고 젖 물리며
지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아이 젖 먹이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어린아이 젖 먹이게.
우는 거동 못 보겠네 일어나서 젖 먹이게.
나도 아주 죽으려네 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그 거동을 어찌 보나 아주 죽여 모르려네.
불에 덴다고 다 죽는가 불에 덴 이 허다하지.
그 어미라야 살려 내지 다른 이는 못 살리네.
자네 한번 죽여 버리면 살 아이라도 안 죽겠나.
자네 죽고 아이 죽으면 조첨지는 아주 죽네.
살아날 아이가 죽게 되면 그도 또한 할 일인가?
조첨지를 생각거든 일어나서 아이 살리게.
어린 것만 살게 되면 조첨지 사뭇 안 죽었네.
[그 맥네] 말을 옮겨 듣고 마지못해 일어나 앉아
약치레하며 젖먹이니 삼사 삭 만에 나았으나
살았다고 할 것 없네 갖은 병신이 되었구나.

(중략)

마음 심(心)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여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크게 활짝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네.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春)자로 부쳐 두고
꽃다운 이내 얼굴 꽃 화(花)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봄바람에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마음속에 쌓인 근심 흐르는 물로 씻어 볼까.
천만 침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굽이굽이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술술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자 만나 슬슬 녹네.

-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나)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의 안파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잊고 뒷도 잊고 둑
줄도 끊고 둑대도 꺾이고 키도 빼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잣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 천지 적막 사나운 과도 치는데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파
엊그제 임 여원 [내] 안히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 작자 미상 -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고독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심리와 그에 대한 자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과거 순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현재 마주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7. (가), (나)에 등장한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덴동어미’는 화재로 텐동이를 잃은 후에 남편인 조첨지 마저 잃게 되는군.
- ② (가)의 ‘그 맥네’는 ‘덴동어미’를 위로하고 삶의 의지를 부여하는군.
- ③ (가)의 ‘덴동어미’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군.
- ④ (가)의 ‘청춘과부’는 텐동어미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군.
- ⑤ (나)의 ‘내’는 자신의 마음을 까투리나 도사공의 마음과 대비하여 생각하는군.

8.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묘사를 통해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대화 형식을 통해 인물들의 사연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선경 후정의 구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9. <보기>를 토대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화전가는 여성들이 일 년에 한 차례 화전놀이를 계기로 놀이 현장에서 부르면서, 놀이가 끝난 후 화전놀이 양상과 감회를 기록한 작품들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의 권리와 준비, 참여, 놀이 장면 등 순차적인 화전놀이 과정과 함께 여성들의 고단한 인생살이나 신세 한탄, 풍월 놀이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화전놀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향유되고 전승되면서 여성 인물과 그 사연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덴동어미화전가>에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화전가의 구조 안에 텐동어미의 일생담을 담은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 ①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하면서 불렀을 작품이겠군.
- ② 주로 여성의 고단한 인생살이를 담아낸 작품이겠군.
- ③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는 화전놀이 양상이 담겨 있겠군.
- ④ 화전가의 형식에 개인의 사연을 내화로 삽입한 작품이겠군.
- ⑤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연을 텐동어미가 종합해서 부른 작품이겠군.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표현하는 언어예술이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를 발견하고 탐구하게 하는 인식적 기능, 가치를 탐색하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윤리적 기능, 문학을 통해 정서를 경험하고 즐거움을 향유하게 하는 심미적 기능, 문학에 참여하는 작자와 독자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치유적 기능 등을 갖는다.

- ① 이 작품은 언어유희로 상황을 희화화하여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군.
- ② 이 작품은 위선적 인간관계를 통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탐구하게 하는군.
- ③ 이 작품은 효에 대한 유교 이념을 강조하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군.
- ④ 이 작품은 창작 당시의 계층 간 갈등 구조를 담고 있어 당대의 사회 구조를 인식하게 하는군.
- ⑤ 이 작품은 상실을 겪었던 화자의 삶에 공감하며 독자가 자신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군.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연소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신비로운 화학 현상이었다. 물질의 본질을 바꾸려던 연금술의 시대가 저물고,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적 열망이 커지면서 그 본질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다. 18세기 과학계를 지배했던 설명은 플로지스톤설이었다. 독일의 화학자 슈탈이 정립한 이 이론은 연소 현상을 플로지스톤이라는 가상의 원소로 설명했다.

플로지스톤설에 따르면, 탈 수 있는 물질은 플로지스톤과 새로 이루어져 있다. 연소는 물질에 포함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며 공기는 이 플로지스톤을 흡수하는 매개체로 여겨진다. 타고 남은 재는 플로지스톤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의 물질이다. 이 이론은 여러 현상을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이를테면, 숯처럼 잘 타는 물질은 플로지스톤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금속을 만드는 제련 과정은 플로지스톤의 이동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바탕에서 금속을 가열해 얻은 ‘금속 재’에 플로지스톤이 풍부한 숯을 넣고 가열하면 다시 금속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에서 캐낸 광석 역시 이러한 금속 재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태로 보았기에, 숯과 함께 용광로에 넣고 가열하면 순수한 금속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플로지스톤설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다. 바로 ‘질량’의 문제였다. 나무가 타면 가벼워지므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는 설명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금속을 가열하면 금속 재가 되면서 오히려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밀한 저울이 보급되면서 화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플로지스톤설의 반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플로지

스톤설 지지자들은 ⑦ ‘플로지스톤은 음(-)의 질량을 갖는다’는 가설을 추가했다. 이론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가정이 계속 덧붙여지면서 이론의 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였다. 그는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소 현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무기는 바로 ‘정량적 측정’이었다. 라부아지에는 수은을 밀폐된 용기 안에 넣고 가열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외부와 물질 교환이 완벽히 차단된 이 장치는 그의 정량적 분석의 핵심이었다. 수은이 든 용기를 가열하자 수은 표면에 붉은 재(산화수은)가 생겼고 용기 안 공기의 부피는 약 5분의 1이 줄었다. 이때 그는 용기 전체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했고, 반응 전후 질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라부아지에는 연소의 본질을 재정의했다. 연소란 물질이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기 중의 한 성분과 결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수은의 질량이 늘어난 것은 공기 중의 한 기체가 수은과 결합했기 때문이며, 늘어난 질량은 정확히 사라진 기체의 질량과 일치했다. 그는 이 기체에 ‘산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한, 붉은 재를 다시 가열하자 수은이 분리되면서 기체가 발생했는데, 이 기체의 부피는 처음 사라졌던 공기의 부피와 같았다. 이로써 연소는 산소와의 결합, 즉 ‘산화’라는 점이 명명해졌다.

라부아지에의 이론은 연소 현상은 물론 금속의 질량 증가 문제까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산소설이 플로지스톤설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산소설에 대한 화학자들의 입장은 다양했고 몇몇 화학자는 플로지스톤설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하지만 산소설은 결국 화학계의 정설로 자리리를 잡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론을 바로 잡은 것을 넘어,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던 연금술의 잔재를 씻어내고 정밀한 측정과 분석에 기반한 근대 화학의 토대를 마련한 과학사의 혁명이었다. 이후 화학자들은 플로지스톤과 같은 모호한 이름 대신, 물질의 성분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명명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11. 웃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로지스톤설에서는 플로지스톤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질이 더 잘 탄다고 보았다.
- ② 정밀한 저울이 보급되면서 금속이 연소한 후에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플로지스톤설의 반례로서 인식되었다.
- ③ 라부아지에는 밀폐된 용기에서 수은을 가열하면 용기 내부의 기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 ④ 라부아지에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연소로 보았다.
- ⑤ 플로지스톤설에서는 광석에 숯을 넣고 가열하는 것을 광석에서 불필요한 재 성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12. 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험의 결과가 오류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운 보조적인 가정이었다.
- ②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관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새로운 가설이었다.
- ③ 기존 이론의 예측과 실제 관찰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연구의 결론이었다.
- ④ 새로운 실험 기구를 사용하면서 기존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⑤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면서 기존 이론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혁신의 산물이었다.

1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플로지스톤의 어원
- ② 과학사에서 산소설의 위상
- ③ 산소설에 대한 당대 화학자들의 반응
- ④ 플로지스톤설을 정립한 화학자의 이름
- ⑤ 연소 현상과 관련하여 라부아지에가 명명한 기체

14. <보기>를 추가하여 윗글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여러 화학자는 밀폐된 용기 안에 수은을 넣고 가열하는 실험을 그대로 재연하였고 그 결과 수은 표면에 붉은 재가 생기고 용기 안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틀리는 실험의 결과가 산소가 아닌 플로지스톤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수은이 가열되면서 플로지스톤을 방출했고 그 결과로 용기 안 기체가 수축되었다는 것이다.

- ① [A]에 추가하여 슈탈이 플로지스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사례로 제시한다.
- ② [B]에 추가하여 연소 현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플로지스톤설의 반례가 되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③ [C]에 추가하여 프리스틀리를 포함한 화학자들이 산소설을 지지한 사례로 제시한다.
- ④ [D]에 추가하여 라부아지에가 자신이 설계한 실험의 모순을 인정하면서 연소의 본질을 재정의하게 했던 사례로 제시한다.
- ⑤ [E]에 추가하여 산소설이 플로지스톤설을 대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를 부연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15. 윗글에 나타난 **[플로지스톤설]**과 **[산소설]**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플로지스톤설은 관찰을, 산소설은 추론을 중심으로 현상에 접근했다.
- ② 플로지스톤설과 산소설은 모두 정량적 분석을 도입하기 위해 등장했다.
- ③ 플로지스톤설은 연소를 방출의 과정으로, 산소설은 연소를 결합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 ④ 플로지스톤설은 금속의 연소를, 산소설은 나무의 연소를 설명하는 데 각각 강점을 지녔다.
- ⑤ 플로지스톤설은 산소설과 달리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깨닭 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이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⑦ 소용돌이였습니다

-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

(나)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춥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

(다)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쳐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와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뻐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16. (가)~(다)의 공통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점충적 기법을 통해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 ③ 상징적 의미를 갖는 행위나 움직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④ 대립적인 성격을 갖는 두 개의 공간이 시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비현실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지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7. (가)~(다)를 읽으면 작품에서 중심 소재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3점]

- ① (가)~(다)에서 정서를 환기하는 대상으로 사용된다.
- ② (가)~(다)에서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심상으로 기능한다.
- ③ (가), (나)에서는 시적 주체에 대해 깨달음이나 발견의 계기를 제공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 ④ (가), (다)에서는 시적 주체와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서 설정된다.
- ⑤ (나), (다)에서는 인격화된 모습으로 시적 주체에게 받아들여진다.

18. (가)~(다)에서 시어들의 관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이웃’과 ‘부동산’은 한때 화자가 속했거나 현재 속하고 있는 두 세계에서 화자가 각기 다른 존재로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가)에서 ‘알았’다는 것과 ‘난해해졌다’는 것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 ③ (나)에서 ‘사람들’과 ‘잔수유나무’는 화자에게 삶의 태도가 상반된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나)에서 ‘꽃’과 ‘그늘’은 화자가 주목하는 현상의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대비적으로 나타낸다.
- ⑤ (다)에서 ‘서 있는’ 나무와 ‘뿌리를 뼄고’ 있는 나무는 결국 화자 자신의 내면의 모습임을 드러낸다.

19. 밑줄 친 부분이 ⑦의 맥락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해 가을 우리는 역사의 격랑 속에 우리의 운명을 맡겼다.
- ②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신만 차리면 혼란을 겪지 않는다.
- ③ 농악대를 따라 원을 그리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혼용일체 가 되었다.
- ④ 날은 화창하고 세상은 고요했으나 내 마음에는 근심의 회오리 가 일고 있었다.
- ⑤ 막상 시험지를 받자 어젯밤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뒤죽박죽 되어 정리되지 않았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에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서술하기보다 다른 사물이나 상황, 사건, 인물 등에 의탁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가운데 시인이나 작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객관적으로 경험 가능한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투사하여 표현할 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 ① ‘유성’이나 ‘조치원’, ‘공주’, ‘온양’ 등은 모두 정치 없이 떠도는 내 마음의 객관적 상관물로서 이 작품의 허무주의적 인생관을 잘 보여준다.
- ② ‘한 그루 늙은 나무’는 이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의 객관적 상관물로서 결국 자신은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비관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여러 장소에서 등장하는 ‘나무’들은 늙고, 침울하고, 고독한 자신의 내면 심리를 비춰 보이던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서울’은 여성의 출발이자 도달점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여행의 과정이 상처의 치유를 목적으로 했음을 암시한다.
- ⑤ ‘뿌리’는 의도치 않게 발견하게 된 자신의 본모습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현실을 궁정하고 자신을 그에 맞추어 살겠다는 순응적 자세를 나타낸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불도를 수행하던 성진은 팔선녀를 희롱한 죄로 육관대사에 의해 남악 형산 연화봉에서 쫓겨나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양소유는 장원 급제하고 대원수가 되어 토번을 토벌하려 출전한다.

양소유가 용왕에게 사례하고 수레에 오르니 어느새 형산 아래에 도착해 있었다. 양소유가 막대를 끌고 산에 올라가니, 일천 개의 바위가 서로 다투는 듯 빼어나고, 맑은 계곡 물이 앞다투어 흐르는 것이 실로 대단한 경치였다. 양소유는 이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탄식하였다.

“언제나 공을 다 이루고 물러나 한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문득 바람결에 종소리가 들려왔다. 양소유가 가까운 곳에 절간이 있다 짐작하고 언덕 위로 올라가니 보았더니 정밀로 절 하나가 있었다. 승려 여럿이 모여 불경을 설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노승이 가장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며 풍모가 뛰어난 것이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닌 듯하였다. 그는 양소유를 보더니 승려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는 반갑게 맞이하였다.

“산에 사는 사람이라 풍문을 듣지 못해 대원수께서 오시는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멀리 마중 나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⑦ 비록 원수께서 아직 돌아올 때가 안 되었으나 이왕 오셨으니 위로 올라 예불을 올리십시오.”

양소유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분향재배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깜짝 놀라 깨어 보니 몸은 의자에 기대어 있고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양소유가 급히 부하 장수들을 모으고 물어보았다.

“그대들도 혹시 간밤에 어떤 꿈을 꾸지 않았는가?”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어젯밤 꿈에 원수를 모시고 적군과 싸워 크게 이겨 적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필시 오랑캐를 무찌를 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양소유가 크게 기뻐하며 간밤의 꿈을 장수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함께 백룡담 위에 가 보니, 주위에 고기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가 흘러 강물이 되어 있는 듯하였다. 양소유는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물을 떠 마셔 보고는 병든 군사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의 병이 금세 씻은 듯이 나았다. 그제야 모든 군사와 말에게 그 물을 먹이니 사기가 충천하여 함성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적군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여 이내 항복해 버렸다.

양소유가 출전한 이후 승리의 청보를 잇달아 올리니,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태후께 문안드리는 자리에서 양소유를 칭찬하였다.

(중략)

양소유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대답하였다.

“우리 아홉 사람의 마음이 이렇듯 서로 일치하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오. 내일 당장 그 일을 행할 것이니 오늘은 그대들과 함께 크게 취하고 싶소.”

이어서 술을 내오라 하여 여덟 명의 부인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려 하는데, 홀연히 석양에 지팡이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이상하게 이겨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니, 노승 한 명이 양소유 앞으로 다가와서는 인사를 하고 말하였다.

“산에 사는 노승이 대승상을 뵈옵니다.”

양소유가 일어나 답례하며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답하였다.

“승상께서는 어찌 평생을 사귀던 오랜 벗을 몰라보십니까?”

양소유가 이 말을 듣고 노승을 다시 보니 과연 낮이 익은 얼굴이었다. 홀연히 깨우치는 바가 있어서 능파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내 옛날 토번을 정벌하러 갔을 때 꿈을 꾸었는데, 동정호에 갔다 오는 길에 남악에 올라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강론하는 모습을 보았소. 혹시 그 노승이 아니십니까?”

노승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옳다, 옳다. 하지만 승상께서는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 기억하고, 십 년을 함께 살았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시니, 누가 승상을 총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양소유는 갑자기 명해져서 말하였다.

“제가 대여섯 살 이전은 부모의 결을 떠나지 아니했고, 열여섯 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로 계속 나랏일을 하였으니,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로는 계속 이곳에서 살았는데, 언제 스님과 함께 십 년을 살았겠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④ “승상께서는 아직 춘몽(春夢)에서 깨지 않으셨습니다.”

양소유가 말하였다.

“어찌하면 춘몽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러자 문득 사방에서 구름이 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자 양소유가 크게 소리쳤다.

“스님께서는 어찌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환술로 흐룽하십니까?”

양소유가 말을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금세 구름이 걷히며 노승과 여덟 명의 부인은 간 곳이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방금까지 보이던 정자와 궁궐도 온데간데없었고, 자신은 홀로 작은 암자 가운데 앉아있었다.

양소유가 스스로 제 몸을 보니 벽여덟 날의 염주가 손목에 걸려 있었고, 머리는 이제 막 깎은 듯 까칠까칠한 것이 완연히 승려의 몸이요, 대승상의 모습이 아니었다. 양소유는 정신이 활활하여 한참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깨닫고, 스승의 심부름을 하다 죄를 얻게 된 것을 기억해 냈다. 이제 와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양소유로 태어나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출세하여 승상이 되어 공을 이룬 뒤 두 공주와 여섯 낭자와 평생을 즐겁게 지내던 모든 일이 하룻밤 꿈이었다.

- 김만중, <구운몽> -

2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서사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 ② 한 인물의 행적에 중점을 두고 서사를 전개한다.
- ③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 ④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한다.
- ⑤ 운문체를 활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부각한다.

22.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소유는 용왕과 해어져 형산에 도착하였다.
- ② 군사들이 백룡담의 물을 먹자 병이 낫고 사기가 올랐다.
- ③ 황제는 양소유의 활약에 흡족해하였다.
- ④ 양소유는 노승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 ⑤ 양소유는 꿈에서 깨고 한참 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23. ⑦, ⑧을 통해 노승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에서 노승은 양소유의 도움을 받아 속세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 ② ⑦에서 노승은 양소유가 종국에 용왕에게 돌아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⑧에서 노승은 양소유와 함께 꿈을 꾸었다 먼저 깨어나 양소유에게 말하고 있다.
- ④ ⑦, ⑧에서 노승은 겉으로 예의를 다하면서도 내심 양소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⑤ ⑦, ⑧에서 노승은 양소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소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24. [A]의 인물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 인물에 근접한 후, 그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과거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외부 사물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인물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구운몽>은 불제자 성진이 정욕과 출세에 대한 번뇌로 벌을 받아 인간 세계의 양소유로 환생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후, 그 허망함을 깨닫고 불가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이 작품은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몽자류 소설의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서도 꿈으로 표현된 양소유의 일생이 비범하게 출생하여 큰 공을 세우고 부귀공명을 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비범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입신양명한다는 영웅소설적 면모이다. 즉 이 작품은 몽자류 소설이라는 커다란 구조에 영웅소설이라는 작은 구조가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① 양소유의 삶 자체가 불제자 성진이 꾼 꿈이었으니, 양소유가 노승을 만나는 꿈은 꿈속의 꿈이라 볼 수 있군.
- ② 양소유가 군사를 이끌고 토번을 정벌하는 것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군.
- ③ 양소유에게 노승이 삽 년을 함께 살았음을 기억하라고 촉구한 것은 영웅의 입신양명을 돋는 조력자로서 기능을 한 것이군.
- ④ 양소유가 승상이 되어 뜻을 이루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와 궁궐에서 살았던 것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부귀영화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양소유가 불제자 성진으로 되돌아와 출세하여 보냈던 평생이 하룻밤 꿈이었음을 자각하는 것은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몽자류 소설의 구조를 보여주는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헌법은 헌법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질서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과 ⑦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밝힌 것이라거나,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라고 밝힌 것이 그러하다. 한편,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의 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들고 있다. 같은 듯 다른 이 두 표현은 그간 헌법을 해석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왔다. 그 까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얼굴은 매우 다양하다. 헌법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참여할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적 자유

으로부터의 자유, 국내외적 위험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자유들은 그 범위와 대상에서 다양한 힘의를 갖는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하면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는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에 적응하면서 변화해 왔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에서 각각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매우 유동적이고 다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헌법 규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이 표현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이른바 **유신헌법**을 통해 등장했다. 이 헌법의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무렵 냉전의 완화라는 세계정세 속에서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당시 정권의 고민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 또는 동반자로 인정함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면서도 이로 인해 대내적으로 민주화에의 요구가 더 거세지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이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헌법에는 평화통일 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사뭇 모순된 두 표현이 함께 헌법 조문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의 원형은 **독일 헌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알려져 있다. 독일 헌법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이른바 ‘주권적 독재’라고 불리는 20세기 전반 극우 파시즘의 전체주의 지배 질서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 주권적 독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성이라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아 주권자가 직접 독재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주의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국민을 동원하여 주권적 독재를 실행하려 했던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헌법에 밝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유신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세웠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인 셈이다.

현대 민주주의에는 보수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생태주의 등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정치 이념들이 공존한다. 현대 헌법은 각각의 정치이념이 자신의 가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맹종하지 않고 다른 가치들을 포용하여 상호공존하는 것이 소중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 헌법의 영문 번역판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리”(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로 되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입헌민주주의의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주적 기본질서의 모호성
- ② 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치이념
-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
-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기
- 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 요소

30. 윗글에 따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자유주의를 뜻하는 표현이다.
- ② 외국 헌법의 표현을 일부 참조한 것이다.
- ③ 헌법 해석에 혼란이 생기게 된 원인이다.
- ④ 처음 제정된 우리 헌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⑤ 하나의 정치이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7. 윗글에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헌법 조문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 ② 헌법 조문은 입헌민주주의 관점으로 취해야 한다.
- ③ 헌법은 국민의 다양한 가치 지향을 포용해야 한다.
- ④ 헌법 이념으로서 자유는 다원적 의미로서 수용해야 한다.
- ⑤ 헌법은 역사적 연원을 존중하여 그 뜻을 지켜 가야 한다.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능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량이 급증하는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성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기존 컴퓨터는 반도체에 집적시킨 트랜지스터 회로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각각의 칩에 집적된 회로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칩’이나 그보다 작은 ‘나노칩’과 같은 극소화 방향으로 반도체 집적 기술이 발달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존 컴퓨터 기술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양자역학에 기반한 양자컴퓨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컴퓨터는 물리법칙에 따라 사물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고전 물리학에 기초한다. 기존 컴퓨터의 공학 기술은 인과율을 따르는 고전 물리학을 정보 처리에 사용하여 1과 0으로 된 수열을 복잡다단한 회로에 통과시키면 늘 동일한 결과만을 ⓐ 내놓는다. 이와 달리, 양자컴퓨터는 원자, 전자, 광자 등 미시 입자들이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확정성을 갖는다는 양자역학을 정보 처리에 활용한다. 그 핵심 원리로 ‘중첩’과 ‘얽힘’을 들 수 있다.

양자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중첩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중첩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성립되지 않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성립 가능하다. 양자가 불확정한 상태의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는 이러한 중첩을 핵심 원리로 활용한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비트(bit)를 연산 단위로 작동한다. 비트는 0 또는 1 중 하나의 값으로 고정된다. 이와 달리, 양자컴퓨터에서는 불확정성을 따르는 양자비트(qubit)를 연산단위로 사용한다. 양자비트는 양자의 중첩 원리를 따라, 하나의 양자비트가 동시에 0과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양자비트를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값(0 또는 1)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과는 각 양자비트가 0 또는 1로 나타날 확률로 도출된다.

중첩과 함께 양자컴퓨터가 이용하는 핵심 원리로 ‘양자얽힘’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어떤 양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양자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 컴퓨터에서 비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하나의 비트를 바꾸어도 다른 비트가 달라지지 않는다. 양자컴퓨터에서 양자비트들은 서로 얹혀 있어 하나의 양자비트를 측정해서 상태를 확정하면 얹힘 관계에 있는 다른 양자비트의 상태도 확정된다. 이처럼 강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양자비트 간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 하나의 양자비트를 측정하면 그 즉시 다른 양자비트도 측정할 수 있어 필요한 연산량이 줄어드는데, 이것만으로도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28. 윗글에 따를 때, [유신헌법]과 [독일 헌법]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 ① ‘유신헌법’은 ‘독일 헌법’에 반면교사로서 영향을 끼쳤다.
- ② ‘유신헌법’은 동·서독의 냉전 완화라는 국가적 상황 변화를 헌법 개정의 이유로 삼았던 ‘독일 헌법’을 참조하여 새 헌법 조문을 추가하였다.
- ③ ‘독일 헌법’은 반공주의 수호를 위한 조항 신설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유신헌법’에 도움을 주었다.
- ④ ‘독일 헌법’은 ‘유신헌법’과 달리 전체주의 지배 질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헌법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 ⑤ ‘유신헌법’과 ‘독일 헌법’ 모두 주권적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였다.

29.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 중, 윗글의 기본 가정이나 전제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3점]

- ① 사람마다 지향하는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헌법 조문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
- ② 헌법 조문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념과 지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편적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진술해야 해.
- ③ 사회는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곳인 만큼 헌법 조문의 해석은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조문의 표현이 오해 없이 정치 이념으로서 이해되려면 이를 추구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어야겠네.
- ⑤ 힘이 있는 사람이 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헌법 조문에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모여 토론과 합의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해.

양자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에 비해 고속화된 연산 능력을 보이는 연산 방법 중 하나로 ‘그로버 해법’을 들 수 있다. 은행의 ATM에서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로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숫자 후보는 0000부터 9999까지 1만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에 숫자를 운 좋게 맞힐 수도 있지만, 1만 번째에 겨우 맞힐 수도 있다. 평균을 내 보면 약 5,000번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컴퓨터로 이 문제를 푸다면 1만 개의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봐야 한다. 양자컴퓨터는 양자비트를 사용해서 복수의 패턴 정보를 중첩하여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양자컴퓨터는 1만 가지의 모든 패턴을 중첩 및 얹힘으로 동시에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맞고 나머지 9,999가지 패턴은 틀렸다고 판정한다. 이때 1만 가지의 패턴은 여전히 중첩된 상태이므로 어느 패턴이 맞는지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1만 가지 패턴을 간접시키면서 양자 확인 기계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그러면 중첩을 유지한 채로 맞는 패턴은 보강되어 가능성이 커지고, 틀린 패턴은 상쇄되어 가능성이 작아진다. 100번 정도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맞는 패턴만 살아남아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다.

기존 컴퓨터가 주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비해, 양자컴퓨터는 반도체와 더불어 극저온에 의해 발생하는 초전도 상태를 이용한다. 극저온으로 초전도 현상을 일으켜 양자 상태를 만들고 마이크로파로 양자를 변환하여 원하는 연산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는 중첩과 얹힘 같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작동한다. 양자컴퓨터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결맞음(coherence) 시간’이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 내에서 사용하는 신호는 매우 작은 에너지이다. 그래서 양자컴퓨터 안팎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노이즈나 전기 저항, 온도 변화 등의 물리적 영향을 받아 양자 간의 중첩이나 얹힘 관계가 무너지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양자컴퓨터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이다.

31.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의 발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유형을 활용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의 작동 원리를 다른 대상에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가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을 나열하여 기술하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컴퓨터는 고전 물리학을 정보 처리에 활용하였다.
- ② 양자비트는 미시 입자들이 불확정성을 갖는다는 원리에 근거한 연산단위이다.
- ③ 양자컴퓨터에서 최종 결과는 양자비트가 어떤 상태로 나타날 확률로 도출된다.
- ④ 양자비트의 결맞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양자컴퓨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양자컴퓨터는 얹힘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양자비트의 상태를 측정한다.

33. 문맥상 ②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협상안을 내놓았다.
- ② 그 군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 ③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게를 내놓습니다.
- ④ 쓰지 않는 물건은 모두 담아서 집 밖으로 내놓아라.
- ⑤ 우리집 닦은 자연 상태로 내놓고 건강하게 키웁니다.

34. 윗글을 읽고 양자컴퓨터의 장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자컴퓨터는 연산 처리 과정 중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혁신 기술이겠군.
- ②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보인 연산 처리에서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겠군.
- ③ 양자컴퓨터의 ‘그로버 해법’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대입시켜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겠군.
- ④ 양자컴퓨터의 양자비트는 두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비트보다 두 배의 효율을 보이겠군.
- 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다른 연산 처리 방식을 채택하여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군.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양자얽힘은 양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지된다. 이 현상을 통신에 이용한 기술이 ‘양자 순간 이동’이다. 이 기술은 양자얽힘을 이용하여 한 발신자에게서 다른 수신자에게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장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양자의 상태가 순식간에 전해지기 때문에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단, 두 양자 중 하나의 양자를 목적지에 보낼 때까지 양자얽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양자 상태를 복제할 수 없어 도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자 순간 이동은 양자 자체가 아닌 양자 상태를 순식간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양자 상태를 도청하려고 측정하면 양자얽힘이 무너져 발신자나 수신자에게 들키 버린다.

- ① 양자 하나를 다른 양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면, 양자얽힘 상태가 형성되어 양자의 순간 이동이 가능하겠군.
- ② 양자 순간 이동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도청하려고 시도하면 그 즉시 결어긋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③ 양자 순간 이동은 보안성을 강화한 정보 통신 기술이 될 수 있겠군.
- ④ 양자얽힘을 유지하는 기술만 발달한다면, 지구 반대편으로도 양자얽힘을 이용해 순식간에 정보를 보낼 수 있겠군.
- ⑤ 양자 순간 이동 기술을 상용화하면 노이즈나 전기 저항 등의 영향으로 양자얽힘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기술이 필수적이겠군.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석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물음을 지속하여 탐구한 학문이 바로 해석학으로, 19세기의 ④ 객관주의 해석학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방법론’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적 실증주의의 영향 아래, 정신과학 역시 자연과학과 같은 객관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석학자들은 인간 정신의 산물인 텍스트를 해석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규칙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러한 규칙을 정립하여 객관주의 해석학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 바로 슬라이어마허이다. 그는 저자가 텍스트에 담아내려 했던 의도를 텍스트의 의미와 동일시하였고 저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을 해석의 목표로 삼았다.

슬라이어마허에 따르면, 모든 텍스트는 ‘언어’라는 보편적 체계와 ‘저자’라는 개별적 주체의 창조적 활동이 결합한 산물이다. 해석학의 주관성은 방법론을 통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하나는 텍스트가 쓰인 언어의 문법과 관습, 그리고 해당 텍스트가 전체 언어 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는 ‘문법적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텍스트로 구현된 저자 고유의 사상과 심리, 나아가 사고의 형성 과정과 개성적인 문체까지 추적하는 ‘심리적 해석’이다. 그는 이 두 해석을 유기적으로 종합할 때 텍스트에 구현된, 저자의 유일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여기에는 해석을 통해 저자의 내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낭만주의적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딜타이 또한 슬라이어마허의 관점을 계승하면서 자연과학과 차별되는 정신과학의 토대를 이해의 방법론에서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석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해석자’ 자신의 존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힌다. 과연 해석자는 자신의 시각과 무관하게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20세기에 등장한 ⑤ 철학적 해석학은 이 질문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답하며 해석학의 새로운장을 열었다. 가다며와 같은 철학자들은 이해가 진공 상태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한 시각인 ‘선이해(先理解)’의 지평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해석자는 백지상태의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 선이해라는 안경을 통해 텍스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해석자가 가진 선이해나 편견은 객관적 이해를 훼손하는 극복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철학적 해석학에서 해석은 해석자의 선이해에서 출발하며, 텍스트를 매개로 해석자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자기 이해’에서 마무리된다.

해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해석학적 순환]에서도 두드러진다. 객관주의 해석학은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부분과 전체의 순환을 제안한다.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부분을 알아야 하고, 부분의 의미는 텍스트의 전체에 비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과 전체 중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와 같은 이론적 난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객관주의 해석학은 이러한 순환을 점진적인 심화 과정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텍스트로 구현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철학적 해석학에서 해석학적 순환은 텍스트의 세계와 해석자의 세계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서로를 형성하는 이해의 근본 구조이다. 여기에서 해석의 목표는 더 이상 저자의 감춰진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자신이 가진 현재의 지평을 텍스트가 가진 과거의 지평과 결합하는 ‘지평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융합은 해석자가 텍스트의 지평을 흡수하며 자신의 지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지평을 존중하고 이에 비춰 해석자 자신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란 해석자와 텍스트의 만남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해석학의 관심사는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방법론적 성찰에서, ‘이해’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의 실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묻는 철학적 성찰로 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객관주의 해석학은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을 유기적으로 종합하며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론을 마련하였고, 철학적 해석학은 해석자의 주관적·역사적 조건이야말로 이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석학은 부적절한 해석과 적절한 해석을 가리면서 적절한 해석의 방법론을 여러 학문에 제공하고 있으며,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는 인문학의 작업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3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의 어원을 추적하면서 그 의미를 다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여러 견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학문의 변천 과정에서 성립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두 관점의 입장과 성과를 대비하고 있다.
- ④ 특정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한 후 그 이론의 비과학성이 밝혀지면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세기의 해석학은 과학적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작되었다.
- ② 슬라이어마허는 철학적 해석학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객관주의 해석학을 정립하였다.
- ③ 해석의 목표에 대한 슬라이어마허의 관점은 낭만주의적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 ④ 딜타이는 슬라이어마허의 관점을 계승하며 자연과학의 토대를 이해의 방법론에서 마련하였다.
- ⑤ 가다머는 해석자가 자신의 시각과 무관하게 텍스트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8. ②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와 같다고 믿었다.
- ② '방법론'을 통해 해석에 관여하는 해석자의 주관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③ 텍스트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해석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 ④ 언어의 보편적 체계와 독자의 개별적 활동이 결합한 산물을 텍스트로 규정하였다.
- ⑤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을 중시하였다.

39. ⑥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에서 '정전'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읽히는 위대한 작품을 일컫는다. 이러한 작품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통찰을 하나의 허구 세계로 형상화하며, 정전의 의미는 독자가 이러한 세계를 대면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전 읽기는 독자가 작품의 세계를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세계를 풍요롭게 체험하는 과정이다. 정전 읽기의 가치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작품의 세계뿐만 아니라 독자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된다는 데 있다.

- ① <보기>에서 '작품의 세계'는 독자가 존중해야 할 텍스트의 지평이겠군.
- ② <보기>에서 독자의 '인식과 경험'은 정전 해석의 출발점인 선 이해에 해당하겠군.
- ③ <보기>에서 '정전의 의미'는 독자와 정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해당하겠군.
- ④ <보기>에서 '정전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지평을 지키며 정전의 지평을 흡수하는 과정이겠군.
- ⑤ <보기>에서 '정전 읽기의 가치'는 정전을 매개로 독자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군.

40.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주의 해석학에서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였다.
- ② 객관주의 해석학에서는 의미를 이해하는 점진적인 심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 ③ 객관주의 해석학에서는 해석을 위해 텍스트의 전체와 텍스트의 부분을 순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철학적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와 해석자의 관계에 기반을 둔 이해의 근본 구조로 보았다.
- ⑤ 철학적 해석학에서는 중립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지평 융합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인간의 뇌는 그 능력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다. 뇌는 평소 잠자고 있다가 외부 세계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만 깨어나 점화하는 식의 '반응성' 장치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근육에 있는 뉴런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과학자들이 뇌 안의 뉴런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했던 배경이다.

(나) 하지만 이것으로는 인간의 뇌에 대해 지극히 일부만 설명한 것이다. 뇌에 있는 860억 개의 뉴런은 거대한 신경망에 연결된 채 외부 시동이 걸리기를 기다리면서 잠자고만 있지는 않다. 뉴런들은 언제나 서로를 자극하고 있으며 때로는 수백만 개를 한꺼번에 자극하기도 한다. 산소와 영양분만 충분하다면, 뇌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인성 뇌 활동]**, 곧 막대한 양의 뉴런들이 벌이는 다단계 자극 활동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은 외부 세계에 의해 촉발된 반응과는 전혀 다르며, 의식의 관여 없이 작동한다. 뇌 활동은 의식이 도달하지 못하는 광범한 영역에 포진해 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외부 촉매가 필요 없는 과정인 호흡에 더 잘 비유될 수 있다.

(다) 뇌의 내인성 활동은 일관되게 함께 점화하는 뉴런 집합들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런 집합을 가리켜 내인성 신경망이라 부른다. 이 신경망의 작동 방식은, 지금은 일부 선수만 게임을 뛰고 있지만 상황이 생기면 벤치에서 몸을 풀던 나머지 많은 선수들이 이들을 대신하게 되는 스포츠팀과 닮았다. 마찬가지로 내인성 신경망에는 가용 뉴런들이 다수 있지만, 신경망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다른 집단의 뉴런들이 동시에 점화하여 팀에서 필요한 모든 포지션을 맡는다. 그렇다면 연속적인 내인성 활동은 심장 박동, 혀파 호흡, 기타 내부 기능의 원만한 작동에 관여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뚱뚱그려 볼 수 있는 내인성 뇌 활동은 꿈, 공상, 상상, 상념, 꿩상 등의 기원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을 산출한다. 또한 유쾌함이나 불쾌함, 또는 평온함 같은 가장 기본적인 느낌의 기원인 내수용 감각도 산출한다.

(라) 고대 이집트의 미라처럼 뇌는 어둡고 고요한 상자 안에 매장된 채 평생을 보낸다. 뇌는 밖으로 나와 세상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직접 감상할 수 없다. 뇌는 광경, 소리, 냄새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 빛, 전동, 화학 물질 등에 담긴 정보 과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뇌는 이런저런 번역임과 떨림의 의미를 알아내야만 한다. 이때 거대한 신경망 안에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거 경험들이 주요 단서가 된다. 이를 통해 뇌는 단 하나의 감각 단서가 여러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며 반응한다. 예컨대 크게 탕 하는 소리가 나면, 문이 세게 닫혔을 수도 있고 풍선이 터졌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누가 손뼉을 쳤거나 총을 쐬었을 수도 있다. 뇌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여러 맥락에서 개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 뇌는 이렇게 두개골 안에 갇힌 채 오로지 과거 경험의 안내만 받으며 ⑦ 예측을 한다. 그것은 아주 미시적인 규모에서 수백만 개의 뉴런이 서로 나누는 대화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신경 대화를 바탕으로 뇌는 내가 경험할 광경,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모든 조각과 내가 취하게 될 모든 행동을 예상하려고 시도한다. 이 예측은 내 주위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나의 생명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뇌가 행하는 최선의 추측이다. 뇌 세포 수준에서의 예측은 외부 세계에서 자극이 들어올 필요도 없이 뇌의 이 부위에 있는 뉴런들을 통해 뇌의 저 부위에 있는 뉴런들이 미세하게 조정됨을 의미한다. 즉 내인성 뇌 활동은 셀 수 없이 많은 예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측을 통해 뇌는 내가 경험하게 될 세계를 구성한다. 과거에 경험한 이런저런 조각들을 조합하면서 각 조각이 현재 상황에 적용될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한다. 만약 지금 내가 글 속의 단어 하나하나를 읽고 있는 중이라면 그때마다 뇌는 평생 독서 경험에 기초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 순간의 내가 경험하고 인식한 어떤 것은 뇌가 방금 전에 예측한 것이다.

41. 윗글이 답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은 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뇌의 활동이 호흡과 비슷한 까닭은 무엇인가?
- ③ 뇌의 내인성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 ④ 외부의 자극에 대해 뇌의 뉴런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⑤ 뇌가 기억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2. **내인성 뇌 활동**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내면적인 이유로 인해 촉발된 성찰 과정이다.
- ② 의식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뉴런들의 조정 과정이다.
- ③ 외부 자극이 무엇인지 인지하기 위한 판별 과정이다.
- ④ 실제 경험에 의해 비로소 작동하게 되는 반응 과정이다.
- ⑤ 무의식에서 기인한 모든 감각들을 이해하는 학습 과정이다.

43. (가)~(마)의 문단 성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화제에 대한 과거의 통념을 제시한다.
- ② (나)는 (가)에 언급된 통념과 대비된 사실을 핵심 개념과 함께 밝힌다.
- ③ (다)는 (나)에서 언급한 개념을 화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술한다.
- ④ (라)는 (나)와 (다)의 설명이 화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열거한다.
- ⑤ (마)는 핵심 개념이 화제에 대해 갖는 의의를 제시한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경험을 단서로 한다.
- ② 외부 자극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 ③ 내인성 뇌 활동의 방식 중 하나이다.
- ④ 경험에 앞서 일어나는 뇌의 작동이다.
- ⑤ 경험 할 내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다.

45. 윗글과 <보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3점]

<보기>

뇌 활동의 일부는 의식과 관련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활동에서는 그렇지 않다. 뇌는 주로 자동으로 움직이며, 의식은 자신의 기저에서 움직이는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공장에 거의 접근하지 못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선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의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발이 벌써 브레이크를 향해 절반쯤 다가간다거나 이유도 모른 채 어떤 음식이나 옷에 마음이 가는 것 등이 그 증거이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으며 또한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신문의 기사 제목만으로도 우리의 관심은 충족된다. 이처럼 뇌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식은 뇌의 모든 활동을 알 수도 없고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 ① 뇌는 의식의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인 내인성 뇌 활동에만 관여한다.
- ② 의식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 경험 이전에 파악한다.
- ③ 뇌는 외부 경험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의식은 그것을 알 수 있다.
- ④ 뇌 활동과 달리 의식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 ⑤ 뇌 활동에는 의식이 관여하지 않는 활동이 있다.

※ 확인사항

-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 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